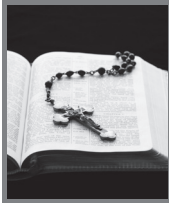


종교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타인과 더불어 사는 지혜(눅 14:07-11)

2018 다민족 연합기도대회 은혜한인교회

‘2018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가 지난 28일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비전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대표대회장인 한기홍 목사는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구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이자 국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주님이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세운 이유 중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최근 성경에서 벗어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 매년 다민족연합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쳐주심을 감사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다.” 라고 말했다.

저소득 가정 자녀 무료 공부방 세움교회

세움교회(담임목사 이윤수, 525 S. LA FAYE -TTE PARK PL # 205, LOS ANGELES, CA 90057)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해 지난 2일부터 무료 공부방을 확대 개설했다.

대상은 5학년 10학년이며 영어, 수학, 과학(물리, 화학), 숙제 도우미, 한글, 컨설팅(멘토) 등이 운영된다. 강의는 금요일 밤은 오후 3시-6시 30분에 토요일 밤 오후 3시-6시 30분이며 장소는 520 S. La Fayette Park Pl. # 520, LA, CA 90057이다.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현직 강사 등이 참여해 학생들의 공부를 돕는다.

문의: (323) 891- 4133

성경에는 잔치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에 잔치의 이야기가 많은 것은 인간 삶에 잔치가 많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사람들은 잔치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축하하는 행사가 바로 잔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잔치는 천국 잔치입니다. 교회는 바로 천국 잔치를 바라보는 자리요 천국 잔치를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설명하려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는 여러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직분도 있고 말석과 같은 직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모든 구조가 높은 데를 향하여 있습니다. 적어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하고 노력하는 모든 이면에는 조금 더 높은 자리를 향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직책에 따라 대접을 받습니다. 직책에 의해서 그 사람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 직책의 정점에 섰던 사람은 다시 낮은 자리에서 일하며 봉사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세가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돈은 위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힘을 가지



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은 위치를 앞질러 갈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가르침은 자신이 앉은 자리가 자신의 최종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자신의 위치가 마치 영원한 자리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진짜 자리를 배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졌던 자리보다 주인이 자리를 배정할 때에 낮은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요 자신이 앉았던 자리보다 주인이 높은 자리에 배정 받게 되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에서 앉은 자리는 상급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이것을 언제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한다면 인생은 하나의 연극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극이나 드라마에는 배역이 있습니다. 배역은 연극 속에서 그 사람의 자리입니다. 임금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인 노릇을 하는 사

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인공은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많습니다. 약한 사람일수록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 상에서 지위가 주인공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살이에서 자기 배역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자리 다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리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인간의 자리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위치에 따라서 댓가가 지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지불하시는 댓가는 분명히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맡은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십니다.

교회는 말석에 앉은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높은 자리를 생각한다면 그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칭찬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주라고 하리니 그 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석에 앉아 있으면 칭찬자가 와서 벗이여 올라오라 하게 되리니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가 자기를 낮추기 위한 흔적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조병우 목사-

부동산을 움직이는 사람들
팀·스피릿 부동산
 INVESTMENT & DEVELOPMENT

사이프레스, 부에나 팍, 플러튼, 에나헤임, 어바인, OC & LAC 전 커버

내집을 사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주택, 커머셜 빌딩, 비즈니스, 사실분 / 파실분 **문의환영**

에블린 로스
 evelynross212@gmail.com
714.397.1241

핫 코인 라운드리 + 커머셜 빌딩

\$2백 12만
롱비치

잘 관리된 코인 라운드리 비즈니스 & 3bed + 1bath 유닛
 5,000 Sq.Ft / 8,000 Sq.ft
 월순익: \$16,000
 20% 다운 / SBA Loan 가능함

핫 Free Standing 단독건물

\$59만 9천
오렌지

베스트 바이 인 타운, 단독건물
 Over 8,600 Sq.Ft 사이즈, C-1 Zoning
 주인 사용도나 투자 용도도 좋은 기회
 Chapman University 인근지역
 대박찬스 놓치지 마세요.

핫 6유닛 빌딩 커머셜빌딩

\$2백 90만
몬테벨로

식당, 네일숍, 드라이 클리닝
 오피스 등 있음
 최근 토탈 리모델링된 건물
 좋은 인컴 포텐셜
 월인컴 프로포마 :\$15,000

핫 1980 년생의 라테일 센터

\$2백 49만
Riverside

Gross Leasable Area: 7,430 SF
 Cap Rate: 5.76%
 라지코너랏: 19,600 Sq.ft

커피 하우스
라크라센타
\$12만
 고급인테리어, plus patio
 사이즈:1,600

사이즈:1,280 Sq.ft 최고 위치,
 많은 관광객과 주택인근, 번창하고 있는
 성장기업과 함께 투자의 포텐셜
 좋은 기회입니다.

Corona Del Mar
\$25만

핫 비즈니스

테리야키- 에나헤임 \$19만 5천
 최고 위치와 포텐셜도 대~박

햄버거- 코스타 메사 \$12만 9천
 순익: 7천/ 단독건물

요거트 & 보바, 드링크 - 라크라센타
 유명브랜드 요거트 숍, 100% 종업원 운영 **\$15만 5천**

요거트-다우니 \$4만 9천-급매
 바쁜 다우니 몰-인사이드, 800 Sq.ft 놓치지 마세요.